



이광종호, 홍콩 밀집수비를 뚫어라

16강 상대 홍콩의 전력은?

탄탄한 수비 바탕으로 한 빠른 역습 추구
한국전에서도 대부분 하프라인 배치 전방
최문식 코치 “측면·뒷공간 돌파도 경계”

남자축구대표팀 ‘이광종호’의 2014인천아시안게임 16강 상대가 홍콩으로 결정됐다. 김판곤 감독의 홍콩은 22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방글라데시와의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후반 7분 퀘시 안난, 후반 28분 후헤이 람의 연속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2승 1무(승점 7)의 홍콩은 같은 날 아프가니스탄을 누른 우즈베키스탄과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뒤져 조 2위가 됐다. A조 1위 한국(3승)은 25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이광종 감독

서 홍콩과 8강 진출을 다툰다. 대표팀 최문식 수석코치가 홍콩·방글라데시전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 팔색조 홍콩

홍콩은 4-5-1과 4-4-2 포메이션을 혼용한다. 볼 점유율을 극대화하되, 빠른 역습을 추구한다. 김판곤 감독은 “최대한 오래 ‘제로(0) 게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비를 탄탄하게 한 뒤 찬스를 잘 살려야 한다는 의미다. 시간이 흐를수록 급한 쪽은 강한 상대이기 때문이다. 홍콩은 B조 최강 우즈베크와의 1차전(1-1 무)에서 이를 입증했다. 효율

적인 역습을 통해 4차례 슛 중 1개를 성공시켰다. 2·3차전에 결정한 공격수 위락 추크가 ‘프리 롤’로 수비진을 흔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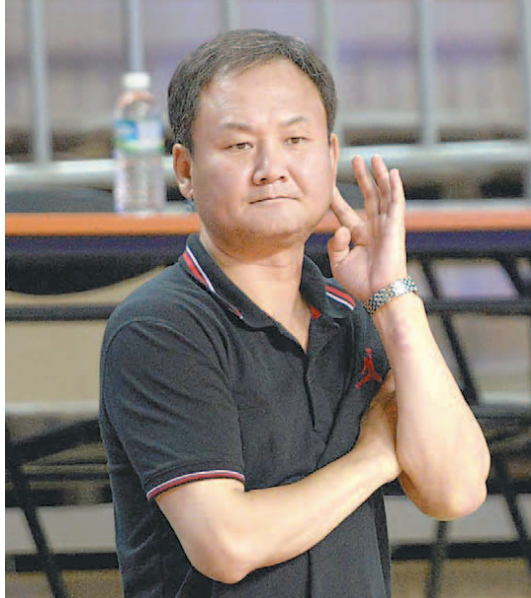
그렇다고 항상 라인을 내린 건 아니다. ‘이겨야 하는’ 아프가니스탄전(2-1)과 ‘비겨도 되는’ 방글라데시전에선 달랐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무기를 올렸고, 방글라데시전에선 중원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세운 4-4-2를 가동했다. 좌우 풀백 파턴 풍-공 와이로가 오버래핑 빈도를 늘리고, 줄여가며 밸런스를 맞췄다. 최전방 안난의 움직임이 날카로웠고, 세프피스 찬스도 잘 살렸다. 방글라데시전 2골이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다. 최문식 코치도 “측면과 뒷공간 돌파가 좋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 ‘밀집수비’ 공략이 필수!

물론 홍콩은 한 수 아래다. 아프가니스탄이나 방글라데시를 마주했을 때보다 우즈베크 전처럼 나설 공간이 크다. 필드 플레이어 대부분이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간다. 안난도 수비에 적극 가담했다. 짧은 패스를 통한 볼 간수 능력도 수준급이었다. 이광종호로서 밀집수비 공략법 마련이 필수다. 조별리그에서도 이를 경험했다. 말레이시아와 라오스가 디펜스를 두껍게 하자, 공간 활용에 애를 먹었다. 김판곤 감독은 15일 우즈베크전을 마친 뒤 “성급할 수 있지만, 오늘 경기가 한국전에 대비한 전략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은 중앙 미드필더 춘 록탄과 원 포워드 겸 공격수 임쑤이 주가 경고 2회로 결장한다. 임쑤이 주는 김 감독이 꼽은 핵심 자원이

화성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고개 숙인 남자 농구 ‘1차전 완승’이 살 길

침체 분위기 속 24일 몽골과 본선 1차전
양동근 “대승하더라도 자신감 회복될 것”

2002년 부산대회 이후 12년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남자농구대표팀은 5개월여에 걸쳐 장기합숙훈련을 해왔다. 그동안 유여곡절이 많았다. 7월 말에는 장신군단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에서 선전하며 모처럼 국내에 농구열기를 지웠다. 그러나 8월 말 2014스페인농구월드컵에선 조별리그 5전패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두고 좌절했다.

월드컵 참패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대표팀 유재학(51·모비스·사진) 감독은 “빨리 잊고 선수들 스스로 (충격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며 선수들에게 분발을 촉구했지만, 5일 스페인에서 돌아온 이후 20일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대표팀의 분위기는 무겁다. 주장 양동근(33·모비스)은 “뭘 해도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 큰일이다. 선수 모두가 월드컵에서 세계농구와의 수준차이를 느끼면서 스스로에게 실망이 컸던 모양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랜 기다림도 분위기 침체의 또 다른 이유다. 선수들은 남자프로농구 2013~2014시즌이 막을 내린지 얼마 되지 않은 5월 중순 대표팀에 소집돼 휴식과 체력관리 없이 훈련에만 집중해왔다. 그래도 양동근은 주장답게 “아시안게임 일정에 들어가면 계속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것이 경기력으로 잘 나타나고, 경기일정 초반 대승을 하다보면 자신감도 회복되리라 믿는다. 선수들이 힘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본선 D조로 직행한 대표팀은 22일 선수촌에 입촌했다. 대표팀은 20일부터 예선을 치러 A조(몽골·홍콩·쿠웨이트·몰디브) 2위에 오른 몽골과 24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2014인천아시안게임 첫 경기를 치른다.

인천 | 정지용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여자핸드볼 신들린 속공 태국전 49-6 대승 2연승

24일 중과 최종전…‘조 1위 4강’ 1차목표
7골 원선편 “4강 후 일본전 준비도 완벽”

한국여자핸드볼은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단 1패만을 기록 중이다. 핸드볼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0년 베이징대회부터 2010년 광저우 대회까지 27경기에서 26승1패를 거뒀다. 그러나 단 한번의 패배가 뼈아팠다. 광저우대회 준결승에서 일본에 28-29, 1점차로 져 6연속 금메달 획득이 좌절됐다. 여자핸드볼대표팀에게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자존심 회복의 장이다. 여자핸드볼대표팀은 22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태국과의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선수들을 고무 기용하면서도 전반을 23-3으로 앞서는 등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며 49-6으로 낙승했다. 20일 인도전(47-11)에 이어 2연승을 거둔 한국은 24일 중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중국을 꺾고 3연승으로 조 1위를 차지해 4강에 진출하는 게 1차 목표다.

한국 특유의 스피드가 인상적이었다. 강한 수비로 상대 공격을 봉쇄한 뒤 빠른 공격으로 손쉽게 득점했다. 대부분의 골이 속공으로 나왔을 정도로 엄청난 스피드와 정확한 패스워크를 자랑했다. 임영철 여자핸드볼대표팀 감독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선수들에게 극도로 강한 체력훈련을 시켰다. 그 덕분에 이날 경기 내내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다.



한국 원선편(오른쪽)이 22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안게임 핸드볼 여자 예선 A조 태국전에서 수비를 뚫고 슛하고 있다.

수원 | 뉴시스

여자핸드볼대표팀 코칭스태프는 조별리그 이후 만날 일본전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디브, 홍콩과 함께 태국전에서 7골을 기록한 원선편(20·인천광역시청)은 “한국 특유의 강점인 미들슛공이 잘 이뤄진 것 같다. 맞춰나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서 일본을 만나면, 확실한 승리로 4년 전의 아픔을 되풀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태국전에서 7골을 기록한 원선편(20·인천광역시청)은 “한국 특유의 강점인 미들슛공이 잘 이뤄진 것 같다. 맞춰나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준비한 것 중에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중국전도 잘 치르고, 4강전 이후 일본을 만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대동도검 제작소에서 야심작으로 35mm용자개 검셋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련용, 선물용, 장식용을 선보이면서 (대·소·고급좌대·검보)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연중개인소장
주문수공예제작
가보소장가치최고!

용자개 검

대: 전장 105cm 칼날 72cm 칼목 35mm
소: 전장 82cm 칼날 55cm 칼목 35mm

리벌버 실탄방식(가벼운 특수 알루미늄재질)
초강력 호신용 가스총



실제 총과같은 폭음으로 상대에게 강한 위압감을 준다!

어깨벨트, 총지갑 무료증정!

여성, 노약자, 은행, 병장, 편의점, 주유소, 펜션, 경매, 연예, 고급여행, 소우치

대동도검 전화 02-434-3304 야간 010-9856-9255

千年의 神秘 寶劍 中の 寶劍!
조선 지팡이 호신검!

신분의 상승 권위와 명예의 상징! 전통 조선호신검! 예로부터 사대부가의 양반들이 외출 시에는 품에 넣는 지팡이처럼 사용하다가 산에 들어가면 심산을 단련하는 수양검으로 들림승의 위협이나 유사시에 신변을 보호하는 호신검으로 사용하고 집에 소장하면 가정의 수호검으로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어 재앙을 막고 복을 누리고 무병장수, 부귀, 공명한다 하여 신성시 여겨온 아주 귀한 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극, 기황후, 왕의꽃, 대왕의 꿈, 무사백동수, 광개토대왕, 제백, 출품작



존경하는 분께 선물 또는 심신단련에 최고입니다!

大東刀劍 02-434-3303 / 야간 010-9856-9255

계좌: 농협 302-0712-6871-21 한기찬

금영가정용노래반주기

업소용노래방처럼 우퍼앰프와 스피커 파워풀한 음향효과
가정에서도 노래방+오디오+영화감상 기능



오늘 노래반주기를 사면 앰프+스피커 공짜!!
DVD플레이어 기능이 있어 고화질 디지털 영화 감상과 음악 감상도 가능하며 가정과 업소용 모두 만족시킬수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중저음베이스 우퍼기능을 탑재한 노래방기기를 경험한다.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국내 최정상의 금영노래방. 국내는 물론 세계로 수출까지도 - 타사기성용 노래방의 단점인 슬라이드방식 영상을 금영은 생동감 넘치는 동영상으로 즐긴다. 가정에 TV만 있으면 만사 OK~!

전화 070-7725-2333 야간 010-3797-0977

전기자전거

15년전통의
기술력노하우
제이디모터스

주행거리와 개인 운동량을 조절하는 어시스트
주행방식과 편안한 주행 스포트방식 모두채택

★日本시마노 6단기어장착!
▶ 국내최초개발 1회충전으로 실주행거리 90km ±10%
▶ 최고의 기술, 최고의 성능
▶ 강력한 파워 어시스트 기능

한달전기요금
3,000원이면 OK!

2015년
최신형



직장인, 노약자, 주부, 학생, 교통수단으로 대인기!!
출퇴근, 시장보기, 레저용, 치킨, 피자, 슈퍼, 배달용 등

귀업 070-7700-0788 / 야간 010-2048-3301

제이디모터스 (주) 제이디모터스 ※대리점 문의 031-947-1119